



## 이야기꽃이 피는 잔디광장

지난 8월 25일 (사진 왼쪽부터) 윤태현(식품유통 · 18), 오사라(보자생물 · 18), 임창훈(기계공학 · 18), 김수인(경영 · 19) 씨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잔디광장은 교내 사진 명소로 전북대 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태현 씨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후 잔디광장에서 아름답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힘을 얻었던 추억이 있다”며 “23학년 학생들도 잔디광장에서 본인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번>

김아름 기자 amyok01@jbu.ac.kr

##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전북대학교 국내 5위 쾌거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가장 높은 점수 달성  
지역사회 내 기업·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덕분  
에너지 등 전북대 장점 살려 학부 육성할 것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Times Higher Education(이하 THE)이 발표한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95위, 국내 5위, 거점국립대 2위를 기록했다.

THE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고등교육 기관을 평가한 후, 순위를 매기는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이하 세계대학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106개

국, 1406개 대학을 평가했다. 평가는 UN에서 지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UN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개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역량을 측정한 것이다.

해당분야는 △빈곤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남녀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 및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행동,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등으로 인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다.

영향력 평가는 17개 분야 점수를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중 전북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 분야와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 분야를 합산해 총점을 냈다. 전북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97.7점을 달성한 파트너십이다. 세계 12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92.8점을 기록한 ‘산업, 혁신 및 인프라’였으며 77.6점을 받은 ‘빈곤 퇴치’, 76.1점인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북대는 총점 88.8점을 받아 세계 95위에 등극했다.

특히 파트너십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한 이유는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기업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북 지속가능발전목표 공동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지속가능발전(SDG) 관련 교과목 및 특강 개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홍석 성과관리부 처장은 “타 대학과 차별되는 전북대의 장점을 살려 ‘에너지, 첨단소재·미래수송기계, 금융, 농식품·의생명, 문화’까지 5대 특성화 분야를 선정 후 분야별 학부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전략적 특성화 지원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찬재 기자 cj@jbu.ac.kr

### 연구중심 대학을 향한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개관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 전북대가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과 지상 1층으로 전주 덕진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옛 학군단 자리에 터를 잡았다. 지상은 전통 한옥으로 건립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같이 하고 지하에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상에는 세미나실 9관을 비롯해 커피숍과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시관 및 실습공간이 마련돼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2층의 대형 컨벤션홀은 한 번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조성돼 국내외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

김동원 총장은 “국제컨벤션센터는 한옥으로 지어 전통의 멋을 살렸고,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컨벤션과 다양한 규모의 세미나장을 갖춰 1년 365일 학술연찬회를 열 수 있게 됐다”며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유진 기자 lisaisa@jbu.ac.kr

## 국제인문사회학과, 국제개발협력포럼 개최 2년 연속 기획, 발제·토론까지 모두 대학생 주도

국제인문사회학과 12명의 학생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련한 국제개발협력포럼이 지난 7월 22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본 행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이다. 특히, 기획부터 발제, 토론까지 모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주도해 화제가 됐다.

대학생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대안 찾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지난해 기획안을 만들어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와 전북국제교류센터 등 지역 내 관련 기관에 제안했다. 이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가 지원하는 학술활동 공모에 선정되며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역시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

북국제교육센터와 함께 2회 연속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지원하는 학술활동 공모에 선정돼 포럼을 더욱 밀도 높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 대주제는 ‘생존과 포용,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었다. 그중 기아위기, 국제적 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 분석과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인생 설계’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국내외 청년활동가와의 만남이 함께 이뤄졌다. 각 세션의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총 19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됐다.

학생 대표 문소연(국제인문사회

학·19) 씨는 “긴 시간 힘들게 포럼을 준비한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쁘다”며 “제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을 통해 개발협력을 공부하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가 주관했다. 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과 KAIDEC(국제개발협력학회), 페퍼코리아의 협력을 받았다.

황설희 기자 gkak1248@jbu.ac.kr



## 사회복지학과 BK21, 연구성과 최우수

사회적 약자 중심 연구 지속적 추진



지난 5월 27일,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학술대회는 ‘인구감소시대, 사회적 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사업단은 사

회적 약자에게도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조력자가 정보이용태도, 정보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군과 기타 시군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노엽(사회복지·석사과정) 씨는 “결혼이민자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참여대학원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EA 구체화 통해 세계 인재 양성

학생 수요 따라 자매결연 확대 예정



지난 7월, 전북대가 3개의 아시아대학과 자매결연 맺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교육연합(AUEA)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교류에서 전북대는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 말레이시아의 마라공과대학, 툰쿠압둘라만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대학들은 인적, 물적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며 세계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으며 장학 지원금, 기숙사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문석 국제협력처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에 발맞춰 브루나이 등 자매결연 국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니 학생들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혜진 씨, 한국식품과학회서 우수상

강원지역 된장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

지난 7월 12일 조혜진(식품영양·19) 씨가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받았다.

조혜진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강원지역 된장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객관적인 된장의 향과 맛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향미 성분

의 지역별 발현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강원지역 된장은 일반 된장과 달리 ‘장가르기 공정’ 없이 발효돼 특유의 향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조혜진 씨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전북대, 공간정보·AI 연계전공 신설

공간정보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



전북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공간정보·AI 연계전공을 신설했다.

공간정보·AI는 자율주행차 등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VR 등의 혁신 기술이 융합된 학문이다. 도시공학과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부 △IT기능정보공학과와 연계해 심화과정 개설

및 워크숍, 현장 실습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2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매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간정보 혁신 인재 양성사업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북대, 필리핀에 한옥 수출 추진

아얌라 몰에 한옥타운 조성 예정



지난 7월 22일 전북대가 필리핀 기업 CONGRATS 2U와 한옥 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는 베트남, 알제리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필리핀 기업과 한옥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마닐라의 대규모 쇼핑몰인 아얌라 몰에 한옥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단지에는 한국식 정원, 한옥 정자

등 한국적인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곳은 각종 한류 공연 및 행사 장소로 이용될 계획이며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자 한다.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해의 건축업자들로부터 전북대 한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한옥 단지 조성은 10월 중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찬우 교수, 장관상 수상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연구 진행



비공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에너지 회수 관련 연구 성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찬우 교수는 ‘배가스 열 회수용 멤브레인 열교환기 수치해석 특성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에는 산업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 배가스에서 배출되는 열

에너지와 수증기를 멤브레인 소재의 응축 열교환기를 이용해 회수하는 내용의 연구가 담겨 있다. 이는 탄소 중립 및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저감 등의 큰 장점이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절감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관련 기술 발전과 푸른 환경을 가꾸는 데에 힘쓰며 관련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대, 인재양성사업 4개 분야 선정

현장실습·인턴십 등 교육과정 시행

지난 7월 21일, 전북대가 교육부 지원사업인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 중 4개 분야에 선정됐다.

전북대는 이번 사업에 △미래형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반도체 △공간정보 분야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7개 관계부처가 공동 기획해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4개 이상의 세부 지원 분야에 선정된 국가거점국립

대는 전북대 포함 2곳뿐이다. 전북대는 오는 10월 중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운영하고, 연계전공을 신설하는 등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가 가진 연구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미래 신산업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역인재 7급 합격자, 지역거점국립대 1위

인재등용관 프로그램 및 체계적 지원 효과

전북대가 6년 연속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지원 선발시험에서 지역거점국립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 161명 중 전북대생은 총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인재등용관 출신이다. 인재등용관은 학생들이 각종 시험 및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다. 인재등용관에는 공무원반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반이 마련돼 있으며 학생들은 350석의 지정좌석, 동영상 강의 및 특강,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받는다.

최혜민(사회·15) 씨는 “인재등용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2년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국회토론대회 최우수

지구당 부활을 통한 소통 창구 확대 제시

지난 7월 29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국회 고성 연수원에서 열린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 연수과정’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대한민국 정치를 뒤집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이 참가했다. 전북대 학생들은 청년 간의 갈등 원인을 상호 소통의 부재 때문으로 파

악했다. 이에 결선 주제인 청년 정치와 젠더정치의 조화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통한 정치적 소통 창구 확대를 제안했다.

이정찬(정치외교·18) 씨는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경미 교수님 덕분에”이라며 “팀원들과 밤새 고생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 금리빨 팀, 통화정책 경시대회 최우수

8월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 주장

지난 12일 전북대 ‘금리빨’ 팀 김세리(경제·20) 씨, 승재홍(경영·17) 씨, 정혜빈(경영·19) 씨, 최성철(경제·16) 씨가 한국은행이 주관한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8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금리빨 팀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금융안전상황 등을 토대로 살핀 뒤 8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들은 치과 의사가 금니를 이용해 충치를 치료하듯, 금니빨 팀이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 경제의 아픈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승팀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세리 씨는 “팀원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팀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 AI&SE 연구팀, KCC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Ft-트랜스포머 결함 예측 우수 입증

지난 7월 22일 김소정(소프트웨어공학·21), 주은정(소프트웨어공학·21), 최지원(소프트웨어공학·석사과정) 씨가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이하 KCC)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위 학생들은 AI&SE 연구팀 소속으로 대회에서 ‘Ft-트랜스포머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표 형식 데이터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구팀은 Ft-트랜스포머 모델이 기존의 결함 예측 모델보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많이 식별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지원 씨는 수상에 대해 “교수님께서 꼼꼼히 지도해주시고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LG디스플레이 산학장학생 18명 합격

프로그램 통해 현재까지 총 117명 취업

공대 학생 18명이 LG 디스플레이에서 시행하는 ‘LGGenius Program’ 산학장학생에 선발됐다. ‘LGGenius Program’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해 미리 양성하는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다. 전북대는 지난 2010년

경험 및 이론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총 117명의 학생이 해당 기업에 취업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5년 평균인 3~4명에 비해 4배가 넘는 18명이 합격했다.

송철규 공대 학장은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산학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취업까지 학생에게는 재학 중 월 100만 원의 장학금과 인턴십을 통한 실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 넓디넓은 전북대 캠퍼스, 우리가 소개해 줄게! 대학본부부터 학식당까지 전북대의 모든 것

학내 순환버스가 필수인 대학. 도보보다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유용한 캠퍼스. 부지가 넓기로 유명한 전북대의 넓은 캠퍼스 곳곳에 필수 건물 및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대에 예비 신입생을 위해 전북대신문이 학교 소개 기사를 준비했다. <여는 말>



### ▲대학의 좌뇌와 우뇌,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전북대의 아름다운 신정문을 지나 건지대로를 달리다 보면 뉴실크로드센터 맞은편, 햇살에 비쳐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대학본부, 전북대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홍보실, 시설과, 학생과를 비롯한 각종 본부 부서가 8층에 걸쳐 위치해있다. 지난 1982년 대학구성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본부 앞에 전북대를 상징하는 표범상이 세워졌다. 새벽에 이 표범상에 올라가면 연인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지만 다 칠수 있어 올라가면 안 된다.

학내 행정 업무는 대학 본부에서 도맡아 하고 있지만, 학내 민원사업이나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가 담당한다. 또한, 동아리원의 편의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가 맡고 있다. 총학생회실과 총동연실은 각각 제2학생회관 3층과 2층에 있다. 이들은 대면 민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제1·2학생회관은 건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져 오는 2023년 신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다.



### ▲캠퍼스 랜드마크, 우리 ○○에서 만나!

입학과 동시에 선배와 후배, 동기와 밥 약속을 잡는 대학생들이 많다. 첫 만남, 전대인들은 어디에서 만날까? 전북대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는 ‘건지광장’이다. 건지광장은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2018년 9월에 완공됐다. 건지광장 분수대 중앙에 있는 누각인 문화루의 이름은 논어 중 ‘학문으로써 친구를 모은다’는 뜻의 이문화우에서 따온 것이다. 문화루에 올라 분수대 바닥을 보면 물 아래 바닥의 세계지도도 확인할 수 있다. 건지광장은 야경 또한 일품이다. 달빛이 은

은하게 퍼지는 건지광장의 풍경은 마치 조선시대 어디쯤 온 듯 착각이 든다.

구정문과 이어지는 ‘알림의 거리’ 역시 많은 학생이 애용하는 만남의 장소이다. 알림의 거리는 여러 정보를 얻기에도 좋은 장소다. 동아리 및 대외활동 모집 포스터 등이 부착되는 알림의 거리 게시판을 참고해보자.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이 가득하다!

### ▲전대인 열정의 산실, 중앙도서관

건지광장에서 농대로 가는 길, 벚꽃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오른쪽에 웅장한 모습의 건물이 보인다.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그곳. 전대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다. 지난 1955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학술연구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의 지식정보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약 186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모바일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좌석을 예약하고,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1층에는 영화 관람부가 있는 멀티미디어실, 복사실, 취업지원과가 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의 도서와 그룹·개인학습실이 위치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열람실은 4층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간의 열람실은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진다.



### ▲특강은 뉴실크로드센터와 인문사회관에서!

전북대를 거닐다 보면 유학생을 많이 마주칠 수 있다. 재학생의 외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뉴실크로드센터는 ‘비단길’이라는 뜻을 담아 지난 2016년에 개관했다. 뉴실크

로드센터에서는 대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토익 강의를 비롯해 영어 회화, 제2외국어 강의가 진행된다.

여러 특강이 진행되는 인문사회관은 지난 2017년 3월에 개관했다. 기와지붕, 회랑 등 한옥 요소가 많이 반영된 인문사회관은 교수연구실과 연구소, 학과 사무실, 세미나실, 강의실이 위치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고, 올해는 전북대 행복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행복드림 마음산책특강’이 열렸다. 또, 대학원 진학설명회와 교환학생 및 유학 설명회도 개최된다.



### ▲학식은 어디서 먹지? 전대 맛집 탐방하기

대학 웹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곳, 바로 학식당! 전북대 학식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공대 9호관 옆에는 ‘후생관’이 있다. 후생관은 500명 동시 식사가 가능하며, 분식·라면·양식의 13개 고정메뉴와 중식 2선으로 구성된다. 중식은 특식과 짜개, 돌솥 메뉴 중 2개씩 매일 다른 메뉴로 운영된다. 후생관 입구에 들어가면 키오스크와 식단표를 볼 수 있다. 메뉴를 정한 후 키오스크로 식권을 발권하고 메뉴별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가면 된다.

중식만을 운영하는 후생관과 달리 진수원에서는 중식과 석식을 이용할 수 있다. 메뉴 구성부터 맛과 양 모두를 만족하게 해 학생들 사이 ‘진수리’라는 애칭이 붙은 진수원은 진수당 3층에 있다. 중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석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메뉴는 매일 달라지는 백반으로 구성되며 자율메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보건소, 한혈의집, 은행은 이곳으로!

중·고등학교에 보건실이 있듯 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다. 지난 1969년 10월에 개설된 보건진료소는 학교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전문 진료를 하고 있다. 현재 후생관 2층에 있으며 일반진료실, 구강진료실, 혈액검사실, 방사선실, 체성분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강진료와 체성분검사는 예약제로 시행되며 무료다. 또한, 신입생과 생활관·장학숙 입주생, 병원 실습생을 대상으로 흉부 X-ray 및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단 30분으로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제1학생회관 옆에는 한혈의집이 있다. 한혈의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다. 전북혈액원은 한혈 가산점을 기준으로 매 학기 전북혈액원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혹은 장학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한혈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내에는 새마을금고와 전북은행도 있다. 건지광장 회전교차로에는 ‘전북대 새마을금고 본점’이, 제1학생회관 2층에는 ‘전북은행 전북대지점’이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돕고 있다.



### ▲카페, 편의점, 종합매장 등 운영하는 생협

생협은 식당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카페, 종합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은 제1학생회관 1층, 중앙도서관 1층, 공대 1호관, 진수당 1층, 건지원에 있다. 지난 2월 23일 뉴실크로드센터 1층 야외에는 이마트24와 생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생협 자체 브랜드인 쿵스켓이 자리 잡았다. 쿵스켓은 유·무인시스템을 도입해 주간에는 생협 직원이 근무하고 야간 및 주말은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카페는 제1학생회관 1층, 진수당 1층을 비롯해 학생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있어 언제나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생협은 제1학생회관 1층에 교보문고와 문구점을 직영하고 있으며, 금·은 시계점과 안경원, 미용실, 제2학생회관 1층의 기념품점, 대운동장 옆 자전거·오토바이점을 임대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백수아 기자 qortndk0203@jbn.ac.kr





# 세계와 하나 되는 전북대, 첫 해외여행은 교환학생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글로벌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발맞춰 전북대는 학생들이 세계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동적 인재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은 재학 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전공 과정 정규 교육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기별로 1년 2회 파견되며 3~5월에 1학기 선발, 9~11월에 2학기 선발이 이뤄진다. 선발인원과 기간은 학기와 파견대학, 연도별로 상이하다. 또한, 전북대는 기숙사비 면제,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과 AUEA(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교환학생으로 나뉜다. 먼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다양한 언어권으로 파견되기에 파견대학별 여학생성을 취득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AUEA 교환학생은 전북대와 MOU를 맺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권 대학에 파견돼 별도의 어학성적 제한이 없다. 단, 이 경우 파견대학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적응을 위해 파견 전 영어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한,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을 영어권으로 다녀온 학생은 국제협력부가 주관하는 AUEA,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AUEA 교환학생은 국제협력부의 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교환학생이 된 학생들은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 타지로 향한다. 눈에 익은 풍경들이 작아질수록 처음이라는 설렘과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파견대학에 도착해 수업을 듣는 순간, 본래 지내던 곳과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 몸으로 와 닿기 시작한다. 류수영(프랑스아프리카·17) 씨는 프랑스의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으로 파견을 다녀왔다. 그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발음 수업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학생들 모두 동글게 서서 서로를 마주본 채 수업했어요. 교수님이 발음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자유롭게 노래하듯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달리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던 수업 방식은 매우 색달랐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고경서(스페인중남미·19) 씨도 공감했다. 그는 “학생

들의 수업 적극성도 한국과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학생들은 참여형 수업 속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 너도나도 앞다뒀 손을 들더라고요. 아주 놀라웠어요.”

파견대학에서의 활동은 공부뿐만 아니라 외국 친구들과의 다양한 교류로도 이어졌다. 김양원(스페인중남미·17) 씨는 현지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파견대학에서 운영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지인 한 명, 교환학생 대어섯 명과 한 조가 돼 학교를 관광하고 놀러 다니며 타지 생활에 몰입하듯 금방 적응해 나갔다. “국적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 살았어요. 각자 나라별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파티를 즐기기도 했죠. 마음만 먹는다면 현지인부터 외국인들까지 친해질 기회가 많아요.”

김두태(스포츠과학·21) 씨는 말레이시아의 케방산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그 역시 학교에서 촬영하는 뮤직비디오 출연, 기숙사생들의 1박 2일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그는 말레이시아 친구의 고향인 코타키나발루에서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1박 2일 동안의 홈스테이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정이 많다고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여행을 다니며 유명한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별미다. 수영 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프랑스의 해안 지역인 브르타뉴로 떠났다. “버터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 버터로 만들어진 음식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은 바로 브루타뉴의 솔티드 버터 캐러멜이었어요. 캐러멜 향이 진하고 씹을수록 버터 향이 입안에 번지면서 끝에는 짭짤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솔티드 버터 캐러멜은 소금이 많은 해안가의 특색을 살린 디저트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다.

양원 씨는 교환학생이 인생의 팔 할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교환학생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 봐야 한다고 말해요. 커다란 게 바뀌었다기보다 나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나 여행을 좋아했구나, 사람한테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구나 같이 사소한 것까지 말이죠!” 경서 씨도 그의 말에 동감했다. “혼자 다른 나라에 가서 행정 업무부터 숙식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생각하는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경험으로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지혜민 기자 202210263@jnu.ac.kr



## 문화탐방부터 공부까지, 외국인 멘토링 프로그램

전북대에서 해외대학으로 가는 학생이 있듯이 반대로 해외에서 전북대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다. 『2021년 전북대학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의 유학생 수는 총 1514명이었다. 재적생 수가 2만4664명이므로 전북대의 유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약 16%에 달한다. 실제로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종종 유학생과 대화를 나눌 순간이 찾아온다. 언어가 달라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이들과 친해지기엔 커녕 말을 붙이는 것도 힘들다. 그럼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전북대신문이 세 종류의 외국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리해봤다.

전북대가 운영하는 외국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Buddy △Study Assistant △한국어 도우미로 총 세 가지다. 한국인 학생은 보통 외국인 학생 1명 또는 2명과 조를 이뤄 학기 중에 각종 활동을 함께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봄과 가을 새 학기가 다가올 무렵, 모집을 시작한다. 선발은 신청 학생의 선호 외국어를 고려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 ▲외국인 친구와 함께하는 전주 탐방, ‘Buddy’

Buddy를 신청하면 외국인 친구와 같이 한옥 마을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적인 교류

를 한 학기 동안 이어가게 된다. International Buddy는 기존의 Buddy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새롭게 만들어진 Exchange Buddy는 교환학생 신청예정자, 교환학생 이수자, 초정 교환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생은 조원들과 전통성당,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전주 곳곳의 명소를 탐방하며 30시간을 함께 보낸다. 30시간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일과로 채워져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교내 카페 이용, 전주 여행 등의 필수 활동은 꼭 해야 한다. 실제로 정서윤(화학공학·19) 씨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오기도 했다.

“한옥마을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친구들이 한복과 한옥을 보고 즐거워해 매우 뿌듯했어요.”

### ▲공부하며 친해져 볼까? ‘SA’, ‘한국어 도우미’

시험 기간에 외국인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친해지는 방법도 있다.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Study Assistant(이하 SA)와 한국어 도우미가 이에 해당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외국인 유학생과 공부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SA는 국제협력부, 한국어 도우미는 언어교육부에서 주관한다.

SA는 ‘학위과정 유학생’, 한국어 도우미는 ‘한국어 연수생’을 모집한다. 신에지 언어교육부 주무관은 “한국어 연수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해외에서 온 모든 분을 뜻한다”며 “그만큼 나이대도 다양하고 한국어도 서투른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한국어 도우미는 언어 학습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학위과정 유학생을 모집하는 SA는 언어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전공 공부도 함께한다.

SA의 경우 외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동시에 국가근로장학금도 받는다. 반면 한국어 도우미는 큰 사람 포인트라는 학교 전용 포인트를 받는다. 해당 포인트를 적정 수준까지 채우면 장학금 또는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현우 국제협력부 주무관은 “참여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과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은 후 같은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하기도 한다”며 “외국인 학생과 교류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 ▲재학생에게 물었다! 외국인 멘토링 어땠나요?

서윤 씨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스페인, 독일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된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천차만별이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유학생도 있었지만, 소통이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다. 이에 그는 활동 외적인 시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어가 서툰 스페인인과 독일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과 관심사를 나누며 친해지기 위해 아침 시간을 쪼개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유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학기가 끝난 후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졸업을 앞둔 서윤 씨는 “대학교에 다닐 때만큼 외국인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는 때가 앞으로 있을까 싶다”며 이는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표현했다. “가능하다면 이때를 놓치지 말고 관련 프로그램을 잘 알아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김근엽 기자 30dlf@jnu.ac.kr



삼성전자 메모리 CVD 기술팀 엔지니어 이동욱(화학공학·22졸) 씨

##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전북대에서 삼성의 문을 열다

적극적인 학교생활, 취업 지원과 컨설팅 큰 도움

1순위로 정한 목표 낮추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길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입학 성적은 낮았지만 지금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동욱(화학공학·22졸) 씨는 마지막 추가합격 전화를 받고 전북대에 입학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남다른 ‘의지’를 꼽으며 삼성에 취업할 수 있었던 비결을 풀어نا갔다.

이동욱 씨는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CVD 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반도체 관련 직종에 근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학점 이외의 스펙은 많지 않았고 어렵게 취득했던 화공기사 자격증은 입사 원서에 써 넣지도 못했다. 동욱 씨는 “학점이 3.2인 입사 동기도 있다”며 “삼성

취업에는 학점과 스펙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그가 삼성전자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학교생활이었다.

그의 전북대 입학 성적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동욱 씨는 위축되지 않았고,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학교생활에 임했다.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우선 학내 활동에 집중했다.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지원 국장을 맡아 e-스포츠 대회의 기획부터 세부 규칙까지 주도했다. “제가 기획한 대회로 학생들이 기뻐하니 너무 뿌듯했죠.”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학외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을 꼽았다. 동욱 씨는 전국 다문화,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로 참여했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분량이 아닌 시간제를 도입하고, 도장 모으기 시스템을 적용해 아이들의 학습역량을 키웠다.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느낀 보람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대학 생활 중에 했던 다양한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작성을 잘못해서 인사 분야와 관련 없는 활동만 즐비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다. 막막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때, 문제를 해결해준 것은 바로 전북대 취업지원과였다. 이곳에서는 취업지원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소서 첨삭 및 기업분석, 문항 분석을 도와줬다. 그는 “프로그램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동욱 씨는 취업을 준비할 때 조급함을 가장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조급함을 문에 목표를 낮추지 말고 1순위 기업을 정한 후 그곳을 위해 준비기간을 여유롭게 잡으라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가장 원하는 기업을 꼭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6주 동안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기술교육 외에도 책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교보문고나 밀리의 소재 같은 독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도 다양하다. 이동욱 씨는 “삼성 내부에 있는 대학원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학원 입학하고 싶습니다. 먼 미래에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소정 기자 thwjd5443@jbnu.ac.kr



정음시립국악단 상임단원 김유빈(한국음악·17졸) 소리꾼

## “제가 제일 빛나는 순간은 판소리를 할 때예요!”

할머니가 다니던 민요학원에 동행, 소리 시작의 계기

전북대 신한류 프로그램 통해 세계에 우리 문화 전파

“친근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대중에게 다가갈게요!”

“편하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22년 차 소리꾼 김유빈 씨(한국음악·17졸)의 꿈은 관객들이 자신을 또 보고 싶게끔 만드는 명창이 되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무대를 했지만 아직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한 공연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고자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하는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에서 김유빈 씨의 열정과 인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음치 탈출이 목표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판소리를 시작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민요학원을 다니던 할머니는 5살 유빈 씨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학원에 데려갔다. 어린 나이임에

도 민요를 구성지게 부르는 유빈 씨를 보고 주위 할머니들은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렇게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된 김유빈 씨는 국악을 좋아하던 할머니의 뜻에 따라 판소리를 시작했다.

전주 MBC ‘얼썬! 열린 마당’에 출연해 춘향이 일부를 공연할 정도로 재능을 보였던 유빈 씨는 자연스럽게 명창이라는 꿈을 꾸게 됐다. 그러다 선생님,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의 꿈에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다.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 끝에 제가 원하는 것은 판소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최고의 명창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판소리를 더 재미있고 오래하기 위해 창극에 도전했다.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창극은 수궁가다. 유빈 씨는 유창한 판소리 실력으로 수궁가의 토끼 역할을 맡았지만 연기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제자리걸음인 제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연습 중 뛰쳐나가 1시간 동안 평평 울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유빈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점점 많은 창극 무대에 오를수록 제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 짜릿함이 제가 지금까지 무대를 서는 이유예요.”

무대의 매력에 흠뻑 빠진 유빈 씨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었다. 그런 유빈 씨의 꿈을 이뤄준 것은 바로 전북대 신한류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유빈 씨는 한 달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방문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전했다. 유빈 씨의 공연에 외국인들은 큰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때만큼 뿌듯했던 경험은 없었어요. 우리 문화를 외국에 뽐내고,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주는데, 그것만큼 우리가 빛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웃음)

현재 그는 정음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며 전주 소리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유빈 씨는 “전주는 한옥, 비빔밥 등 전통이 깃든 지역으로 유명하다”며 판소리 역시 전주가 본거지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판소리의 맛을 살리고자 전주시는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판소리는 직접 들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라며 조금은 생소하더라도 공연을 보러 와주길 소망했다. “샌드아트와 국악이 결합돼 하나의 이색작품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대중이 소리를 더 재밌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원소정 기자 thwjd5443@jbnu.ac.kr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한동영(지구환경과학·10졸) 주무관

## 태풍, 백만대군의 적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기역학’ 이 기상청 취직에 가장 도움된 과목

기상학, 과학적 지식 외에도 행정, 법적 이해 필요

7급, 9급을 비롯해 연구사까지, 길이 열려있는 곳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날씨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측불허인 날씨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아는 남자. 바로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동영(지질·10졸) 씨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동영 씨의 기상청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을 ‘기상청의 애환을 고증으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그중 긴박한 기상특보 장면은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에 레이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해요. 그러다 태풍이라도 오면 꼭 백만대군의 적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 같죠.” 모두 잠든 새벽, 기상청 직원들은 특보와 호우주의보를 내리기 위해 매우 급하게 움직인다.

시간이 생명한 기상청, 동영 씨가 처음부터 이 직업을 꿈꿨던 건 아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과학을 좋아했던 그는 자신의 관심 분야인 지구환경과학에 진학했다. “여러 과학 수업 중 해양, 지질 내용이 가장 재밌었어요. 더 심도 깊게 관심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었죠.”

막연함과 불안감에 폭풍전야처럼 보였던 대학 시절, 동영 씨는 3학년 2학기부

터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했다. “무엇을 하며 밥 먹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기상청에 취직한 선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용기가 생겼죠.” 동영 씨는 ‘대기역학’이라는 수업을 통해 알기도 분석과 기상역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기상청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그는 2년간의 수험생활을 거쳐 ‘기상청 사람들’이 됐다.

많은 사람이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동영 씨. 그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자연현상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영 씨는 10번의 예보 가운데 기상청은 88.5~9번 맞출 정도로 정확한 편이라고 말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번거롭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쉽죠. 이렇게 되면 그 뒤로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어 동

영 씨는 “정확한 날씨가 궁금하다면 기상청 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직원은 기상학, 과학적 지식만 풍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이기에 행정과 법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그는 기상청을 문과와 이과의 사교가 동시에 필요한 곳이라고 정의했다.

한동영 씨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로 기상청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기상청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9급, 7급, 공채를 통해서 입사할 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을 전공한 뒤 연구사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양한 길이 있는 만큼 학과 선배 또는 교수님의 조언을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도전하면 분명 길이 열릴 겁니다!”

안유진 기자 lisaisa@jbnu.ac.kr





# 시간표부터 연애키까지! 재학생이 말하는 알짜 정보



‘대학생’ 하면 전공 책을 한 손에 끼고 벚꽃으로 만개한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는 이미지를 그리곤 한다. 그러나 부푼 기대감도 잠시,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실제 대학 생활을 경험하며 상상과는 다른 대학 현실에 당황하기도 한다. 22학번부터 19학번까지, 대학을 경험해 본 선배들이 전북대 23학번 새내기에게 ‘진짜’ 대학 생활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곳에 모였다.

## ▲꿈꾸던 대학 생활 vs 진짜 대학 생활

동기들과 학과 잡바를 입고 잔디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시험 기간에 과방에서 밤새는 장면.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각자가 생각해본던 대학의 기대가 있을 것이다. 대학을 경험해본 21, 22학번의 진짜 대학 생활은 어땠을까?

김세희(신문방송·22) 씨는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온 사람과 다양한 학과생이 많아 다양각색의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선생님께서 교수님, 교실에서 강의실, 교과서에서 전공 책 등의 변화가 신선했다는 학생도 있었다. 송시현(동물자원과학·21) 씨는 “학기 초 처음 써보는 낯선 호칭이 대학생임을 더 실감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TIP**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 있는 전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대학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학과 동기들과도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죠.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나 분과 모임 등을 선택해 공간 시간도 활용하고 친구와 선후배도 조금 더 깊게 사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제 시간표 어때요? 괜찮나요?”

개강 날이 다가오면 PC방 각 자리 모니터에는 전북대 수강 신청 홈페이지와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네이버즘 창이 켜진다. 3초, 2초, 1초 피리리링!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면 PC방 이곳저곳에서는 환호와 비명이 함께 들리기 시작한다. 시간표가 주어지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듣고 싶은 과목과 원하는 시간대로 시간표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



“초·중·고 시절에는 오전 9시 전에 등교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대학생이 된 후에는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등교하게 된다는 점이 기대됐어요.” 송고운(프랑스아프리카·22) 씨는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수강 신청 전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 홈페이지에서 강의계획서와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참고했다. 강의계획서를 통해 시험과 과제 반영 비율을 살피고, 에브리타임으로 과목의 평점을 확인하며 본인만의 시간표를 짰다.

고운 씨는 “수강 신청 시간은 오전 8시이기에 생각보다 늦잠 자는 학생들이 많다”며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만 해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운 씨는 수업이 비는 공간 시간에 동기들과 놀러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보내고 있다. 중앙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센터에서 DVD를 대여해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한다.



**TIP** 전북대 부지는 전국에서 10위로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에 꼭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 건물의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를 고려한 뒤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하루에 시험이 몇 개일지도 고려하면 더 좋은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다. 보통 3시간으로 이뤄진 강의는 요일을 나눠 진행되는데요, 주로 2시간 강의일 때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통창, 총학생회

학생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일하는 학생 자치 기구,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고충 등을 바탕으로 문화 및 행사, 학사, 시설, 인권,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



중·고 시절 학생회 임원으로 일했던 세희 씨는 당시 학생회 활동에 뿌듯함을 느껴 입학 후 총학생회에 지원했다. 홍보국 국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며 포토샵과 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을 쌓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2학생회관 3층에 있는 총학생회실에서 민원과 문의를 받거나 물품 대여를 관리하고 있다. 그는 “큰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조에 편입되다 보니, 총학생회 국원 약 80명과 한 번씩은 함께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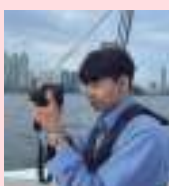
**TIP** 총학생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내기 여러분, 면접 때 최대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일 때보다 전달이 잘되고 더 열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면접에 참석한다면 총학생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인의 최대 강점이 될 거예요.

## ▲바른연애길잡이, 과팅과 CC

핑크빛 캠퍼스 라이프의 시작, 과팅과 CC! 과팅과 CC는 단조로운 수 있는 대학 생활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준다. 과팅은 학과 미팅의 준말이며, CC는 ‘Campus Couple’의 약자다. 범위에 따라 단대 CC, 학과 CC로 나뉘지만 보통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지석아, 너 나랑 과팅 나갈래?” 새내기 시절, 오지석(기계시스템공학·19) 씨는 학과 동기의 권유로 처음 과팅을 나가게 됐다. 그는 첫 과팅을 나가기 전, 이성과 꼭 잘돼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다. 그러나 과팅을 즐기고 온 후 지석 씨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과팅이 재미없으면 1차로 마무리되고 재밌으면 해 뜰 때까지 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배들은 보통 CC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캠퍼스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CC를 마주칠 수 있다. 현재 지석 씨도 타과생과 CC를 하고 있다.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수업을 듣기란 쉽지 않다. 같은 과목이라도 학생 수가 많을수록 분반이 많아져 시간과 강의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쁘게 조성돼있는 캠퍼스 중 인문대 주변 산책로나 건지광장, 동아리방, 대운동장 앞 흔들 그네에서 자주 데이트를 즐기곤 한다.



**TIP** 중·고 시절에는 보통 같은 반 친구끼리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교는 규모가 크다 보니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렵습니다. 학과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변에 아는 사람을 넓히거나 과팅을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북대 등록금 뽕 뽑은 섀

‘큰사람 프로젝트’는 전북대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경력 개발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통합경력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계별로 활동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 1단계는 진로를 탐색하는 화이

트 벨트로 취득 시 등록금 중 ‘수업료 1’이 감면된다. 순차적으로 옐로우, 블루, 레드 벨트로 나뉘며 각각 최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시현 씨는 지난해 주변 선배의 추천으로 큰사람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게 됐다. 소득분위가 높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교내 장학금이라도 받아보자’라는 의지로 화이트 벨트 취득에 도전했다. 화이트 벨트를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의 필수항목(대학생활계획서, 인성·적성검사, 독서감상문, 외국어 점수)과 자율선택항목을 이수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 시현 씨는 가장 유익했던 항목으로 ‘대학생활계획서’를 꼽았다. 그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학생활계획서를 작성하며 각 학년에 달성할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벨트를 취득하며 자연스럽게 목표를 이뤄나갔다.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노력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현재 시현 씨는 옐로우 벨트 취득을 위해 준비 중이다.

**TIP** 공강 혹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벨트 취득을 위한 항목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 어느새 화이트 벨트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큰사람 프로젝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어 두 배로 보답 받는 느낌입니다. MBTI 성격검사, 진로탐색검사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활동도 많으니 함께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 ▲경험자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알바생활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대학에 오면 카페, 술집 알바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근무한 뒤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 제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알바를 경험할 수 있다.

박중배(바이오메디컬공학·19) 씨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주로 구인 애플리케이션과 지인 소개를 통해 알바 자리를 찾았다. 중배 씨는 “새내기 때는 알바 시간과 학업 시간을 조율하지 못해 낮은 성적을 받기도 했다”며 이후 주말이나 평일 저녁 알바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교내 보건 진료소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다. 중배 씨는 “근로 시간은 자신의 시간표 중 빈 시간대에 정해진다”며 “역지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다른 알바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내 근로는 오후 6시면 퇴근할 수 있어 저녁 시간이 여유롭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달에 최대 근로 시간이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중배 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바를 결정하는 걸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TIP** 근로장학생을 신청할 때 근무지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 수업을 듣는 건물 근처의 기관이나, 집에서 가까운 건물 위주로 선택하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과도 친근한 대화를 해야 하는 종류의 알바 경우, 낯선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일에 잘 적응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판단한 후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북대의 꽃, 대학생들의 로망 동아리. 전북대에는 작은 관심사부터 진로 활동까지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의 중앙동아리를 전북대학교 초성 '자비드'와 함께 살펴봤다. 중앙동아리는 소속 단과 대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기사에서 소개한 중앙동아리 외 더 많은 중앙동아리는,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www.jbndonga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난 몰랐어, 중앙동아리가 이리 다채로운지!

## 창작과 스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즈웨거 공연분과

공연분과 음악 동아리 즈웨거에서는 힙합 문화를 음악과 영상, 아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즐긴다. 즈웨거는 '전주'와 'swagger'를 합친 단어로, 이전부터 전주에서 크루 단위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5년에 정식으로 중앙동아리가 됐다.

즈웨거는 댄싱, 버스킹, 음원 발매, 외부 공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즈웨거의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정기공연 '즈웨거 쇼'다. 오디션을 거쳐 공연 팀을 정한 후 두 달 동안 연습에 매진한다. 오랜 노력이 담

긴 즈웨거 쇼를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 장소 대관부터 공연 홍보까지 정성을 가득 담았다. 이태양(경영·21) 즈웨거 회장은 "무대 위에서 한번 관객들의 환호를 맞보면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즈웨거는 단순히 노래 커버에 그치지 않고 힙합, 알앤비, 록, 밴드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창작한다. 그중 일부는 음원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즈웨거 쇼에서 선보인 단체 곡으로 'Stay With Me !'라는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했다. 영상매체도 활발하

게 활용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종강을 맞이해 'Without You!'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전북은행 본점,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 전주 곳곳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브이로그, 연말 정산 영상을 게재해 즈웨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태양 씨는 "힙합 문화에 관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즈웨거에 지원하길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음악 감상부터 창작까지 경험해보고 싶다면, 즈웨거의 문을 두드려보라.

## 여행 추억 쌓기? 배낭 하나면 충분해 배낭하나 학술분과

학술분과 동아리에서 학문 관련 주제만 다룰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 동아리 배낭하나도 학술분과 소속이다. '배낭 하나를 메고 여행을 다닌다'는 뜻을 가진 배낭 하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힐링 가득한 동아리다. 강구현(전자공학·18) 배낭하나 회장은 여행을 "사람과 목적이 정해지면 배낭 하나만 가지고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배낭하나의 여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리 임원, 일반부원과 관계없이 여행 기

획 인원을 모집한다. 네 명 정도 모이면 각자 여행지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여행을 기획한다. 이후 여행지별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떠난다. 구현 씨는 신입생 때 갔던 순천 여행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한다. "그때 태풍이 남해안 쪽으로 왔는데, 신경 쓰지 않고 순천으로 달려갔죠. 빗속을 다 같이 뛰어다니며 사진 찍고 밤에 우비 쓰고 돌아다녔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어 팀원들과 특별한 일화로 새벽에 함께 라면 먹었던 일을 소개했다. 그는 "배고파서 몰래 라면 먹으려 했

는데, 뱀비에 물 올리자마자 들켜서 결국 동아리원 전체의 라면을 훔치게 됐다"며 "별빛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며 다 같이 먹었던 라면이 정말 맛있었다"고 당시를 추억했다.

지난 1990년에 창단된 배낭 하나는 내년 봄 34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현 씨는 "수험생활로 매우 힘들 텐데 낭만이 펼쳐지는 대학생생활을 꿈꾸며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배낭 하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며 수험생을 응원했다.

## 바람을 가르며 열정 가득 농구 한판 돌풍 체육분과

푸른 빛의 유니폼이 인상적인 돌풍은 38년 차 농구 동아리다. 돌풍의 유니폼은 '돌풍'에서 연상되는 파란색, 하얀색과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했다. 유민서(스포츠과학·19) 돌풍 회장은 돌풍을 '열정적인 동아리'라고 말했다. 민서 씨의 소개처럼 돌풍은 농구 경기 관람, 대회 출전, 기본기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농구를 즐긴다.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돌풍은 굼직한 수상 경력도 겸비한 팀이다. 그동안 △KUSF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9 광주·전라지역 예선 3등 △2019 전라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

농구 대회 대학생부 우승 △2021 원더풀삼척 전국학생 3대3 농구대잔치 3등의 쾌거를 거뒀다.

돌풍의 목표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못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돕는 것이다. 돌풍은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 레이업, 슈팅, 기본적인 드리블 등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루틴을 구성했다. 민서 씨는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틴을 통해 새로 들어온 신입생도 훈련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어요."

돌풍은 매주 토요일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나 함께 운동한다. 일명 OB(졸업생) YB(재학생)로 칭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민서 씨는 선후배 사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비결로 '소속감'을 꼽았다. "선배는 후배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후배는 선배에게 예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고 있어요." 끝으로 민서 씨는 "농구에 관심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서 부딪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시태그로 창업 정보 모두 모아 해시태그 창업분과

'창업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분과 해시태그는 지난 2018년에 창설됐다. SNS상에서 연관된 정보를 묶을 때 사용하는 # (해시태그)처럼, 모든 걸 연결해서 도전하겠다는 뜻의 이름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학번, 관심사, 전공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는 것이 해시태그의 포부다.

해시태그는 주로 2~4학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고학년이 새로 창업에 뛰어들고 싶은 저학년을 도우며 신(新)과 구(舊)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도록 프로젝트마다 인원 교체를 권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팀 'World-E'가 만든 '하수구 쓰레기 처리 로봇'이 있다. 이는 센서 부착형 무선조종 로봇으로, 하수 처리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청소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외에도 조리게 형식을 결합한 소방 스프링클러 등 해시

태그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전국 장려상 수상과 특허 출원의 성과를 거뒀다.

김인찬(토목공학·17) 해시태그 회장은 "도전정신을 강화하고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형성하는 것이 해시태그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역량보다 창업을 향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시태그와 함께해요."

## 모든 아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굿데이 봉사분과

아동이 꿈꾸는 좋은 날(GOOD DAY)을 만들어가는 중앙동아리 굿데이는 자원봉사동아리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 옹호,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간다. 실제로 NGO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에 소속된 굿데이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과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굿데이가 다양한 주제 중 '아동 권리 옹호'에 집중한 이유는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굿데이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리원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세영(사회복지·18) 굿데이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을 꼽았다. 이는 올해 5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세영 씨는 "사람들이 쉽게 아동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람개비 만들기, 공놀이 등의 활동으로 아동 권리 인식을 교육에 진행했다"며 "전북 지역 신문에도 해당 캠페인 기사가 실려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굿데이는 NGO 소속 동아리로 봉사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임시쉼터 '그림' 자원봉

사 등에 참여할 때는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리원 중에는 사회복지사나 NGO 활동가로 사는 삶을 그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

장세영 씨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면 굿데이를 찾아주세요"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굿데이에서 봉사의 뜻깊음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어서와, 전북대 생활관은 처음이지?

익숙했던 집을 떠나, 거리도, 사람도, 풍경도 낯선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어디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까? 통학, 자취, 장학숙처럼 다양한 거주 형태가 있지만, 전북대에는 총 2315명의 학생을 위한 참빛관, 새빛관, 한빛관, 평화관, 대동관, 헤민관, 창의관 등의 생활관이 마련돼 있다. 전북대 생활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생활관생에게 직접 들어봤다. <어느 말>

## 올빼미족을 위한 평화·대동관

지난 1988년과 2000년에 준공된 평화·대동관은 그만큼 역사가 깊은 생활관이다. 전북대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여러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평화·대동관은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다른 생활관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그 예로 본가가 전주인 이경인(생물환경화학·22) 씨는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생활관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했고 현재 평화관에서 지내고 있다.

평화·대동관은 방 안에 개인화장실이 없어 공용화장실과 세면장을 사

용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장점이 있다. 경인 씨는 “개인화장실은 직접 청소해야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샤워실도 칸막이가 있어서 씻을 때 큰 불편함을 못 느꼈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평화·대동관은 다른 곳들과 달리 생활관 내 독서실을 항상 24시간 개방한다. 그래서 새벽에 공부하는 올빼미족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새벽에 눈치를 보며 방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룸메이트와 활동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개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편히 지낼 수 있다.



## 의학 계열 학생은 헤민관으로!

헤민관은 의료인 인술을 펼친다는 뜻으로 의대, 간호대 2~4학년 등의 학생들이 사는 곳이다. 의학 계열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헤민관은 전북대병원 옆 의대, 간호대 근처에 위치해 있다. 헤민관은 다른 생활관과 달리 개인 냉장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헤민관에 거주 중인 이미정(간호·19) 씨는 “냉장고 덕에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또, 헤민관 1층에는 전자레인지 여러 대가 구비돼 있어 언제든지 음식

을 데워 먹을 수 있다. 헤민관은 내부 식당이 없어 의학 계열 학생들은 주로 의대 식당에서 중식과 석식을 먹곤 한다. 중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석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편 헤민관 뒷산에는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미정 씨는 “생각 정리를 위해 자주 찾는다”며 “임상실습 기간에는 평소 걷던 습관이 체력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체력 단련과 힐링을 위해 뒷산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 체육시설 편히 즐길 수 있는 ‘빛’관

가장 많은 생활관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참빛관, 새빛관, 한빛관이다. ‘빛’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세 가지 생활관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참빛관은 유일하게 내부에 식당이 있어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참빛관에 거주하는 신다는(영어영문·21) 씨는 “한식과 찌리얼 등이 포함된 간편식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모든 생활관 중 참빛관과 새빛관에만 체육시설이 있다. 참빛관에는 헬스

장, 새빛관 내에는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이 있으며 다른 호관의 거주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시설을 마련해놓았다. 체육시설은 1학기에는 개방돼 있었지만 2학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한편, 한빛관은 6인실과 2인실이 있다. 한빛관의 6인실은 2개의 방과 거실이 존재한다. 6인실에서 지내는 노준(무역·22) 씨는 “거실 덕에 자는 룸메이트들을 깨우지 않고도 개인 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 전북대의 새로운 생활관, 창의관

올해 2학기에 완공된 창의관은 더욱 많은 학생이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초마다 생활관 신청자 중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탈락해왔다. 하지만 창의관을 만들고 난 후 생활관 입주율은 약 4% 올랐다.

그렇다면 창의관이 다른 생활관보다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다른 생활관은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창의관은 공용조리실이 있어 편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공용조리실에는 화재를 예방하

기 위한 인덕션, 냉장고가 비치돼 있다. 또한 공용조리실 한편에는 식탁과 의자를 넓게 배치했다. 창의관에는 1인실도 새로 생겼다. 1인실은 학부생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대학원생들이 편하게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기혼자실도 존재한다. 기혼자실은 학부생 부부 또는 대학원생 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처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창의관은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생활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관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생활관에 사는 학생들은 왜 ‘생활관’을 선택했을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대학 생활 내내 한빛관에 거주한 박승도(기계설계공학·17) 씨는 “저렴한 가격에 밥 세끼 제공되고, 성능 좋은 냉·난방기에, 온수까지 잘 나오는 자취방은 없을 것”이라며 거주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참빛관생 다른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안전이 보장된 생활관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생활관에 거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저렴한 가격과 안전을 장점으로 꼽는다.

전대인들이 생활관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식사 해결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생활관 내 식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은 덤. 새빛관에서 지내고 있는 임채민(환경공학·17) 씨는 기존관 식당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영양사님과 조리사님들이 많이 신경 쓰십니다. 메뉴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쉽지만 오히려 한 메뉴에 집중하다 보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매력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한빛관에 거주하는 승도 씨는 고민하지 않고 ‘베란다’를 꼽았다. 캐리어 보관에 용이하고, 빨래 건조 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기 쉽고, 방 내부 온도 조절이 편하다는 것. 이외에도 생활관생들은 각 생활관에 있는 복사기, 편의점, 세탁실, 택배실, 내부 독서실과 컴퓨터실 등을 매력으로 꼽았다.

한편 생활관생들은 또 다른 장점을 교우관계라고 말한다. 대동관생 신재승(과학·20) 씨는 “새내기 때 생활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더 빨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 생활 내내 새빛관에 살고 있는 채민 씨는 “룸메이트들뿐만 아니라 룸메이트의 주변 친구들까지도 친해지는 것이 생활관 거주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승 씨는 생활관을 ‘아지트’라고 부른다. “아지트는 무언가를 연습하거나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을 뜻해요. 생활관을 나 혼자가 아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작은 공간으로 생각해서 ‘아지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윤에서 기자 dpij23@jbn.ac.kr

## 끝없이 펼쳐진 연꽃의 향연, 함께 걸어요!

전북대 생활관 근처에는 전주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덕진공원이 있다. 덕진공원은 전주 시민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전주 내 몇 안 되는 도심 공원이다. 생활관생은 참빛관 바로 옆에 있는 덕진공원으로 자주 산책하러 나간다. 생활관생의 산책길을 엿보기 위해 함께 덕진공원으로 떠나보자!

덕진공원 초입, 산책로를 걷다 보면 그윽한 풍취를 자아내는 버드나무를 볼 수 있다. 덕진공원은 여러 수생식물과 멋진

풍경으로 유명하다. 특히 7월과 8월, 덕진공원을 가로지르는 연화교를 건널 때 보이는 연분홍빛의 연꽃 또한 장관이다. 무더운 여름날 전북대를 거닐다 보면 덕진공원 연꽃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학교 내부에 흩날려오기도 한다. 오상환 전주시설공단 공원운영부 담당자는 “원래는 덕진공원의 오른쪽인 연꽃자생지에만 연꽃이 피지만, 옛 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연꽃이 왼쪽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덕진호 전체에 연꽃이 핀

것을 볼 수 있다”며 연꽃이 덕진공원의 큰 볼거리임을 강조했다.

덕진공원의 볼거리는 연꽃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 근처에서 살고있는 여러 동물도 유명인사다. 호숫물로 목욕하고 털을 고르는 오리와 참새를 비롯한 여러 새, 청개구리와 두꺼비들은 오랜 시간 전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밤마다 덕진공원을 산책한다는 생활관생 김민서(동물자원과학·21) 씨는 “덕진공원 산책로를 걸을 때 가끔 오리 가족이 자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볼 때마다 귀엽고 신기하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운이 좋으면 오리 가족들을 전북대에서도 만날 수 있다”며 “오리 가족이 전북대 건지광장 문화루 분수대에서 종종 쉬었다 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민서 씨는 덕진공원을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로 ‘저녁과 새벽’을 꼽았다. 그는 “야경이 예뻐 공원을 거니는 동안 치유가 된다”며 조명이 켜진 덕진공원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

다고 조언했다. 오상환 담당자 역시 “덕진공원의 큰 매력은 연화교에 설치된 조명 시설”이라며 “평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덕진공원에서는 단오 행사를 비롯해 연꽃축제 등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생활관생이 사랑하는 산책로 덕진공원, 야경마저 아름다운 덕진공원으로 산책을 떠나보면 어떨까?

백수아 기자 qortndk0203@jbn.ac.kr







## 당신이가는 곳곳이 대학로의 역사!

# 따뜻한 한 끼부터 시원한 가맥까지

네온사인, 화려한 간판으로 가득한 대학가. 그 사이에 10년 이상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소들이 있다. 유행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익숙한 맛으로 대중을 공략하는 장소들도 있지만, 그 곳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노포의 비결과 맛에는 범접할 수 없다. 동기, 선배와 약속이 잡히면 세월이 보증하는 맛집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떤가?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옛날땡땡이상추튀김'의 떡볶이, 빈속을 따뜻하게 채워줄 '금암면옥'의 칼국수, 비가 오는 날 닭볶음탕을 찾게 하는 '길손네 학사주점',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를 시원한 맥주로 날려줄 '슬기네가맥'까지 다양한 맛집들을 소개한다.

## 추억의 맛 그대로, 옛날땡땡이 상추튀김

전북대 구정문 앞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소한 튀김 냄새를 풍기는 곳이 있다. 냄새를 맡으면 그냥은 못 지나치고 뒤돌아보게 하는 전북대 분식 맛집, 바로 '옛날땡땡이상추튀김(이하 상추튀김집)'이다. 지난 1991년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장사를 이어온 상추튀김집은 '땡땡땡' 수업 끝나는 종이 치면 만나는 장소라고 해 상호에 '땡땡이'가 붙었다. 20~30년 전 상추튀김집에 방문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고 있어 상추튀김집은 이제 어엿한 가족식당이 됐다.

간판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의 대표 메뉴는 상추튀김이다. 갓 만들어진 튀김은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들어오도록 가게 앞쪽 창에 가득 쌓여있다. 바삭한 튀김을 아삭한 상추에 싸 먹을 때의 식감은 저절로 미소를 불러오게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유강원(전주시·55세) 씨는 "튀김을 색다르고 덜 느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추튀김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쌀떡과 어묵에 양념이 진하게 밴 떡볶이 역시 상추튀김과 함께 가게의 매출을 책임진다. 유강원 씨는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 과일, 물엿 등을 이용해 기본 좋게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포인트"라며 분식에 대한 내공을 엿보였다.

박현주(광주시·41세) 씨는 "어릴 적 먹던 옛 분식 맛이 느껴진다"며 "보통 맛집은 골목에 숨어 있는 편이지만 이곳은 학교 앞에 있어 짧은 점심시간 학생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좋을 것"이라고 가게를 추천했다. 색다른 튀김과 정성이 가득 담긴 엄마표 떡볶이가 생각 나는 날, 상추튀김집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떤까?

## 가맥의 시작은 슬기네가맥 에서부터

학생들의 일과가 끝을 맞이할 때면 서서히 문을 여는 '슬기네가맥'. 어둑해진 분위기 속 이곳에 웅기중기 모여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개운히 풀어준다. 슬기네가맥은 지난 1991년 5월 '슬기슈퍼'를 인수한 후 가맥집으로 첫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30년 넘게 운영되며 구정문의 대표 주점으로 입지를 굳혔고, 전북대 학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의 대표 안주는 명실상부 참치전이다. 달걀물에 청양고추, 맛살, 햄과 참치, 그리고 밥을 섞어 부치면 완성되는 간단한 요리다. 참치전의 밥이 참치와 햄의 짭맛을 잡고 부드러움은 늘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다. 때문에 이 안주는 슬기네가맥의 매출 1등 공신이 됐다. 오죽하면 슬기네가맥을 운영하는 최영란(전주시·59세) 씨는 가게를 '참치전 팔아 대박 난 집'으로 표현할까.

그렇다고 다른 음식을 빼놓을 수는 없다. 맥주에 절로 손이 가게 하는 짭짤한 떡볶이, 새콤한 골뱅이 소면 무침 등 즐거운 식감과 다양한 맛의 안주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곳을 자주 찾는 김태열(사회·19) 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뒤풀이로 처음 가게 됐다"며 "전북대생이라면 한 번쯤 꼭 가게 되는 모임의 성지"라고 이곳을 표현했다. 최영란 씨는 항상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신경 쓴다고 말했다. 그는 슬기네가맥이 "앞으로도 친절한 사장님이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식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 비 오는 날 닭볶음탕 한입 길손네

쌀쌀한 날씨나 비가 쏟아지는 날은 유독 속도 공허해진다. 따뜻하고 열큰 음식이 생각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 지난 1984년부터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길손네 학사주점'(이하 길손네)이다.

전북대 구정문 바로 앞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화려한 간판 사이 눈에 띄는 황토벽 식당 하나가 들어온다. 문을 열면 보이는 조선 시대의 주막과도 같은 빛바랜 내부와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낙서가 이곳이 장수 식당임을 증명한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 식탁들 위로는 하나같이 뚝배기에 가득 담긴 닭볶음탕이 올라와 있다. 뜨거운 김 아래, 빨갛고 걸쭉한 국물과 닭 한 마리가 생양파와 대파 이불을 덮고 있다. 길손네의 닭볶음탕은 달콤한 생양파와 살코기 한 점을 발라 함께 먹으면 '단짠단짠'의 정석을 느낄 수 있다.

23년간 길손네의 모든 요리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마분자(전주시·62세) 씨는 "맛의 비결은 영업비밀이지만 불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손네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닭볶음탕을 주문하면 나오는 바삭한 김치전은 자연스레 "막걸리 하나요!"를 외치고 싶게 만든다. 마분자 씨는 "한창 바쁜 점심·저녁 식사 시간대에 늦더라도 손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김치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방문했다는 차현준(정치외교·22) 씨는 길손네를 "누구에게나 소개해 주고 싶은 오래된 식당"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특히 든든한 닭 음식과 막걸리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 고소한 국물이 생각날 땐 금암면옥

면발 사이사이로 녹진한 국물이 스며들었으면서도 탱탱한 식감을 유지하는 칼국수. 속이 다 비치는 얇은 만두피와 알찬 소를 지닌 만두. 모두 '금암면옥'의 메뉴다. 간판을 처음 내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칼국수와 만두, 그리고 쫄면은 금암면옥을 상징하는 대표 메뉴다.

금암면옥의 메뉴들은 골고루 사랑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칼국수가 특히 인기가 높다. 이곳의 칼국수 면은 보통 칼국수 면보다 얇다. 그러면서도 탱탱한 식감을 살렸다. 얇은 면발 덕에 조리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또 각종 해물로 육수를 냈음에도 해물의 잡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맛만 남겼다.

칼국수에는 통들깨와 김, 고춧가루가 고명으로 올라간다. 면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통들깨를 씹을 때 툭툭 터지는 식감과 고소함이 미소를 자아낸다. 정현숙(전주시·56세) 씨는 "8년 전 이곳을 처음 방문해 이제는 단골이 됐다"며 "면에서 느껴지는 깔끔한 맛에 계속 찾게 된다"고 전했다.

금암면옥을 운영하는 서지원(전주시·59세) 씨는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든다"며 "고명으로 올라가는 들깨와 김도 직접 볶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손님을 생각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문준혁 기자 moondori3840@bnu.ac.kr  
박찬재 기자 cj@bnu.ac.kr





#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 1.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항상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유의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각종 고사 안내,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 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입학 모두 취소합니다.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다음 5쪽 참조)
  - 지원하는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을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자(학생부종합전형은 큰사람 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에만 해당)
  -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학생부종합전형은 큰사람 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에만 해당)
  - 면접에 결시한 자
  - 지정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정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추후에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 아.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 입학한 자

※ 위 “아”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함(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 오류 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가 결제되어야만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가 “0원”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지역인재 기회균형전형의 경우도 전형료 결제 확인 버튼 클릭 필수)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확인 후 전형료를 결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유념)
- 신입생 입학 및 학생·장학·학사 운영 등 관련된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비동의 하는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한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면접 관련 유의사항

- 수험생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된‘반 편성 공지 및 면접장소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등을 숙지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 및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 중 1가지)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소지할 경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당일 교복착용은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본교의 공지가 없는 한 면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모든 수험생은 면접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은 특성화캠퍼스(익산)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 5. 실기고사 관련 유의사항

예체능 실기고사 응시 학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소지할 경우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개인별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입학 관련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수시 전형 지원자의 개인정보 변경 유의사항

수시 전형 지원자의 개인정보 변경은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와 연동되는 원서접수 개인정보 변경 사이트에서 변경신청 가능(주소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필수)하며, 등록금 납부 마감일인 2023. 2. 9.(목) 17:00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변경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형요약

구분		전형 일정		장소	비고
입학원서 접수		9.13.(화) 09:00 ~ 9.17.(토) 18:00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a href="http://enter.jbnu.ac.kr">http://enter.jbnu.ac.kr</a> )	인터넷으로만 접수
구비서류 제출		9.13.(화) 09:00 ~ 9.19.(월) 18:00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7일, 18일 제외)
구비서류 도착확인		9.14.(수) 15:00부터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개별통보 하지 않음
1단계 합격자발표		11.11.(금) 14:00 예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	반 편성 공지	11.18.(금) 14:00 예정			
	예비 소집	11.24.(목) 오전반 08:30 / 오후반 13:30		반 편성 공지 시 지정된 장소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 실시	11.24.(목) 오전반 09:00 / 오후반 14:00			
예체능 실기 고사	예비 소집	11.10.(목) 08:30		학과 지정 장소 추후 공지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실기 고사	11.10.(목) 09:00		학과 지정 장소 추후 공지	
최초 합격자 발표		12.15.(목) 14:00 예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개별통보 하지 않음 •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등록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버튼'클릭(예치금 없음)
최초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12.16.(금) 09:00 ~ 12.19.(월) 16:00까지			
총원 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1차	발표	12.20.(화) 14:00 예정		
		등록	12.21.(수) 16:00까지		
	2차	발표	12.22.(목) 14:00 예정		
		등록	12.23.(금) 16:00까지		
	3차	발표	12.26.(월) 09:00 ~ 18:00 (개별 우선 통보)		
		등록	12.27.(화) 09:00 ~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09:00 ~ 2. 9.(목) 17:00		납부 장소 및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기 바람

※ 구비서류 방문 제출은 9.19.(월) 18:00 접수 분까지, 등기우편은 9.19.(월)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3차(최종) 총원 합격자 발표는 개별 우선 통보하며, 최종 총원 합격 대상자가 통화 연결 3회까지 연락 두절이거나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예비 순위자에게 총원 합격을 통보

※ 합격자 발표 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3. 주요변경사항

### 1. 수시 학생부교과 농어촌전형 신설

단과대학	모집단위	선발인원
공과대학 (15명)	건축공학과	1
	고분자·나노공학과	1
	유기소재섬유공학과	1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1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전공)	1
	양자시스템공학과	1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1
	전자공학부	1
	컴퓨터공학지능학부	2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전공)	1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전공)	1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1
	항공우주공학과	1
	화학공학부	1
농업생명과학대학 (11명)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1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1
	농생물학과	1
	목재응용과학과	1
	산림환경과학과	1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
	생물환경화학과	1
	식품공학과	1
	작물생명과학과	1
	조경학과	1
	지역건설공학과	1
사범대학 (10명)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1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1
	교육학과	1
	국어교육과	1
	독어교육과	1
	수학교육과	1
	역사교육과	1
	영어교육과	1
	일반사회교육과	1
	지리교육과	1
	사회복지학과	1
사회과학대학 (3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심리학과	1
상과대학 (2명)	경영학과	1
	무역학과	1
생활과학대학 (4명)	식품영양학과	1
	이동학과	1
	의류학과	1
	주거환경학과	1
인문대학 (9명)	고고문화인류학과	1
	국어국문학과	1
	독일학과	1
	사학과	1
	스페인·중남미학과	1
	영어영문학과	1
	일본학과	1
	중어중문학과	1
	철학과	1
	과학학과	1
자연과학대학 (4명)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전공)	1
	지구환경과학과	1
	통계학과	1
	생명공학부	1
환경생명자원대학 (2명)	한약자원학과	1
합계		60명

### 2.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모집단위 및 선발인원 확대

대학	학과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대학본부	스마트팜학과	3	3
	공공인재학부	6	6
	글로벌융합대학	30	28
	간호대학	7	7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7	7
	고분자·나노공학과	—	6
	유기소재섬유공학과	3	5
	기계공학과	9	9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11	11
	기계시스템공학부	13	1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7	7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6	6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전공)	—	5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5	6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전공)	—	7
	융합기술공학부(IT응용시스템공학)	—	5
	전기공학과	—	7
	전자공학부	—	20
	컴퓨터공학지능학부	13	19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전공)	7	7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전공)	9	9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6	6
	항공우주공학과	—	6
	화학공학부	14	14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3	3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3	3
	농생물학과	—	5
	식품공학과	6	6
	작물생명과학과	—	2
사범대학	교육학과	2	2
	국어교육과	2	3
	독어교육과	2	2
	영어교육과	2	2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2	2
	수학교육과	3	4
	사회복지학과	3	3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3
	심리학과	3	3
	정치외교학과	6	9
	행정학과	6	7



대학	학과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상과대학	경영학과	17	17
	회계학과	9	9
	경제학부	11	11
	무역학과	12	12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	1
	식품영양학과	—	4
수 의과대학	수의예과	5	15
약학대학	약학과	15	14
의과대학	의예과	46	4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	5
	독일학과	—	5
	문헌정보학과	6	6
	사학과	7	7
	스페인 · 중남미학과	5	5
	영어영문학과	6	6
	중어중문학과	6	6
	철학과	—	5
	프랑스 · 아프리카학과	—	6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3
	반도체과학기술학과	—	5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전공)	—	5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	—	5
	통계학과	—	5
	화학과	9	9
치과대학	치의예과	18	17
환경생명 자연대학	생명공학부	11	11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5
총 계		387명	517명

4.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023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자	만 학 도	일반 학생	고른기회		예체 능· 실기	농어 촌 학생	농어 촌 학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자	
지역 인재	지역 인재 기회 균형																	
전체 모집인원			492	11	26	10	1,321	517	7	60	143	121	77	96	13	14	2,908	
본부	스마트팜학과	자연	3	1			14	3				1					22	
	합계		3	1			14	3				1					22	
글로벌 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인문	18		1		1					1					21	
	국제이공학부	자연	8				2						1				11	
	공공인재학부	인문	4				15	6									25	
	합계		30		1		18	6				1	1				57	
간호 대학	간호학과**	자연	5		1		19	28	2								55	
	합계		5		1		19	28	2								55	
의료대학	건축공학과	자연	7				18	7		1		2	2				1	38
	고분자·나노공학과		6				15	6		1		1						29
	유기소재섬유공학과**		5				16	5		1		1	1					29
	기계공학과**		6				28	9				2	2					47
	기계설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		3				21	11				2	1					38
	기계설계공학부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2				15					1						18
	기계시스템공학부		6				30	13				2						51
	도시공학과		2		1		11					1	1					16
	바이오메디컬공학부		5				15	7				1	1					29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3				15	6		1		1	1					27
	소프트웨어공학과		3	1			12					2	1	12				31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		6				12	5		1		1	1					26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		4				17	6										27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		5				15	7										27
	양자시스템공학과		2				7			1				1				11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2				11			1					52	2		68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시스템공학)		4				10	5				1	1					21
	전기공학과**		5				17	7				2	1					32
	전자공학부		3	1	2		75	20		1		2	1			1		106
	컴퓨터인공지능학부		6		1		46	19		2		3	4			1		82
	토목/환경/자원·에너지 공학부(자연·에너지공학)**		3				15	7		1		1	1					28
	토목/환경/자원·에너지 공학부(토목공학)**		7				20	9		1		2	1					40
	토목/환경/자원·에너지 공학부(환경공학)**		4				15	6		1		2						28
	항공우주공학과**		4				13	6		1		2	1					27
	화학공학부		9		1		33	14		1		2	1			1	1	63
	합계		112	2	5		502	175		15		34	23	64	5	2		939
100년전 창립대학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인문	4		1		6	3		1		2	1				18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인문	3		1		6	3		1		1					15	
	농생물학과**		4				11	5		1		1					22	
	동물생명공학과**		9		1		9					1	1				21	
	동물자원과학과**		8		1		12					1	1				23	
	목재응용과학과**		5		1		10			1		1	1				19	
	산림환경과학과**		4				12			1		2	1	12			32	
	생명자원융합학과					10								20			30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자연	5				12			1		1	1		1		21	
	생물환경화학과**		7				13			1		2	1				24	
	식품공학과**		7		1		16	6		1		2					33	
	원예학과*		9				9					2	1			1	22	
	작물생명과학과**		5				13	2		1		1	1		1		24	
	조경학과		3	1			8			1		1	1				15	
	지역건설공학과**		6				12			1		2	1		1		23	
	합계		79	1	6	10	149	19		11		20	11	32	4			342

- 1)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2) \*표시 학부(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102쪽 참조
- 3)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 · 인증

① 간호학과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2019. 12. 12. ~ 2024. 12. 11.)인증 획득

② 의예과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6년(2021. 3. 1. ~ 2027. 2. 28.)인증 획득

③ 치의예과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6년(2021. 3. 1. ~ 2027. 2. 28.)인증 획득
- 4) 상과대학 경영학과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경영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 5) \*\*표시 학부(과)는 2022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임. 자세한 사항은 103쪽 참조
- 6) ◎표시 학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행복창업 PLAN : program for leader of agricultural venture)으로 축산 및 원예 분야의 학생 선발 후 실습 및 현장 실무 지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 교육사업 대상학교임(영농 취업 · 창업 또는 후계자 우대/재학기간 동안 1인당 2,000만원 내외 개인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여 및 해외

2023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고른기회			일반 학생	고른기회			예체 능 실기	고른기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자	만 학 도		지역 인재	지역 인재 기회 균형	농어 촌 학생		농어 촌 학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인문	3				4	2		1		1					11
	국어교육과		4				5	3		1		2					15
	독어교육과		1				3	2		1		1					8
	역사교육과		2				4			1		1					8
	영어교육과		4				5	2		1		1	1				14
	윤리교육과		5		1		4					1					11
	일반사회교육과		2				4			1			1				8
	지리교육과		2				4			1			1				8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	자연	5				4			1		1					11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		2				5	2		1		1					11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교육)		7				3					1					11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		5				6					1					12
	수학교육과		2				7	4		1		1	1				16
	체육교육과		예체 능										2				
합계		44		1		58	15		10		14	4				146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인문	7				7	3		1		1	1			1	21
	사회학과**		7		1		9	4			1	1					2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6	3		1		1	1				16
	심리학과**		5		1		7	3		1		1	1				19
	정치외교학과**		10	1	1		15	9				2	1			1	40
	행정학과**		6	1	1		15	7				2	2				34
합계		39	2	4		59	29		3		8	7			2	153	
상과대학	경영학과**	인문	14				40	17		1		1	1		1		75
	회계학과**		6	1			20	9			1	1		1		39	
	경제학부**		9		2		24	11			1	1		1	1	50	
	무역학과		22	1	1		27	12		1		2	1				67
합계		51	2	3		111	49		2		5	4		3	1	231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인문	3	1			9	1		1		1	1				17
	식품영양학과**	자연	3		1		10	4		1		1	1		1	1	23
	의류학과		4		1		11			1		1	1			19	
	주거환경학과		3				14			1		1	1				20
합계		13	1	2		44	5		4		4	4		1	1	79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예과	자연	2				15	15				1	1				34
	합계		2				15	15				1	1				34
	약학과	자연	2				4	14	1				3				24
	합계		2				4	14	1				3				24
예술대학	무용학과(발레)	예체 능									4						4
	무용학과(한국무용)									9							9
	무용학과(현대무용)									10							10
	미술학과(한국화)**									8							8
	미술학과(서양화)**									8							8
	미술학과(조소)**									8							8
	미술학과(가구조형디자인)**									8							8
	산업디자인학과(제품디자인)**									18							18
	산업디자인학과(시각영상디자인)**									18							18
	음악과(작곡)**									2							2
	음악과(성악)**									8							8
	음악과(피아노)**									7							7
	음악과(관악)**									3							3
	음악과(현악)**									6							6
	한국음악학과(작곡·이론)									3							3
	한국음악학과(성악·타악)									8							8
	한국음악학과(관악)									7							7
한국음악학과(현악)								8							8		
합계									143							143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9				29	43	3								84
	합계		9				29	43	3								84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문	4				11			1		2					18
	국어국문학과**	인문	3				11	5		1		2	1				23
	독일학과**	인문	3				11	5		1		1	1			1	23
	문헌정보학과**	인문	3				14	6				2					25
	사학과**	인문	4				15	7		1		2					29
	스페인·중남미학과**	인문	4				10	5		1		1	1			2	24
	영어영문학과**	인문	7				15	6		1		2	1				32
	일본학과	인문	4				14			1		1	1				21
	중어중문학과**	인문	7				13	6		1		2	1				30
	철학과**	인문	4				11	5		1		2					23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인문	6				13	6				1	1			2	29
	합계		49				138	51		9		18	7			5	277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자연	3	1			6			1		1	1			2
물리학과**		자연	2				15	3				1	1				22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자연	4				10	5				1					20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		자연	4				12	5		1		1	1				24
생명과학부(생명과학)**		자연	4				11	5				1	1				22
수학과**		자연	3		1		13					1	1				19
지구환경과학과		자연	4				14			1		1	1				21
통계학과		자연	4				13	5		1		1	1				25
화학과**		자연	4				20	9				2	1				36
스포츠과학과	자연										1	1				2	
합계		32	1	1		114	32		4		11	9			2	206	
치과대학	치의예과	자연	6				6	17	1								30
	합계		6				6	17	1								30
환경생명 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자연	7	1	1		24	11		1		2	1			1	49
	한약지원학과	자연	5		1		7			1		1	1				16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자연	4				10	5				1	1				21
	합계		16	1	2		41	16		2		4	3			1	86



알찬대학 따뜻한 동행

# 큰사람 키우는 국가거점대학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 대학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enter.jbnu.ac.kr>